

靑 “김정은 답방 18~20일 제안 사실 아냐” “연내든 연초든 열려있어”

“복측 결단이 중요... 구체적으로 제안한거 없어”

청와대는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관련 시기는 연내든 연초든 열려있고 복측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가 최근 불발 채널을 통해 복측에 오는 18~20일 사이 서울 방문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내 답방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대통령이 밝힌 것이 정답”이라며 “아직 남북 간에 답방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한 게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17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7주기를

는 점을 고려해 20일 전후로 해 서울 방문을 제안 했다고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오슬랜드 한 호텔에서 열린 재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 “중요한 것은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 보다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며 연내 답방 성사 가능성에 유동적 입장을 견지했다. /뉴스

“조국, 특감 개선방안 조속 마련”

‘비위 논란 관련’ 문 대통령 지시... 민정수석 유임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위 논란이 불거진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어젯밤 귀국 직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에게 보고를 받았다”며 “보고 내용은 이른바 특별감찰반 사건의 그동안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며 “세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지시가 ‘유임으로 간다

는 의미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 수석에 (거취에) 대해 변명이 없었다”고 답하며 유임 결정임을 밝혔다.

앞서 임 실장의 특감반원 전원교체 지시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시 사항과 관련해 그동안의 청와대 대처에 대해 대통령이 잘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또 ‘대검 감찰 결과와 조 수석의 보고가 대동소이할 것’이란 생각인가, 앞으로 (청와대에서) 추가 비위 혐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결과를 좀 더 지켜봐 달라”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김종현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등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 불거진 공직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했다. /뉴스



태권도재단 홈페이지 개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태권도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재단 홈페이지는 신설했다.
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사용해 온 기존 태권도원 홈페이지 보다 사용자 ‘편의성’ 및 다양한 국적의 태권도인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 홈페이지를 개편·신설했다.

이번 개편·신설 방향은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국외 홍보를 강화했다. 우선 한국어 및 영어 등 2개 언어를 지원하고, 올해 12월 중에는 중국어(간·번체), 내년에는 스페인어·러시아어·프랑스어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231만4,000㎡(약 70만 평)에 달하는 태권도원의 연수·숙박·식음·편의시설 등의 내·외부를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드론 촬영 및 VR 360도 파노라마 촬영 기법을 이용한 ‘사이버 투어’를 제공하여 방문 전에도 태권도원의 다양한 시설과 장소 등을 실체처럼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PC 및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 자동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홈페이지 개편 및 신설을 통해 태권도원·재단의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고 자세히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한편, 홈페이지는 www.tpf.or.kr/tl과 www.tpf.or.kr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뉴스

정부, ‘자동차 활력제고 대책’ 등 18일 발표 예정

정부가 지난날 조산업 활력 대책 발표에 이어 자동차업계 등 제조업 활력 대책을 마련해 12월에 줄줄이 선보일 예정이다.

정문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산업부가 업무보고를 하는 날(18일)을 계기로 ‘자동차 활력 제고 방안’과 ‘제조업 혁신전략’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8일 발표 예정인 자동차 활력 제고방안에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활력제고 방안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날 제조업 전반을 걸친 제조업 활력제고 및 혁신전략도 공개한다.

정 장관은 “대책 한 번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평화 정착, 힘으로 뒷받침”

정경두 장관, 취임 후 첫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남북 군사합의 이행 점검·전략권 전환 철저한 준비 강조

국방부는 5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군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8년 국방업무 성과 평가와 함께 2019년 국방운영 중점 보고, 국방 핵심현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 시작과 함께 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 한 해 우리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다”며 “작년 1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평창 동계 올림픽,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1년 이상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안보 상황에 대해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은 통해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가되고, 역내에서는 주변국 간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이행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임무와 역할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

화 정착을 위한 국가정책과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모든 지휘관들은 변화된 안보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각 부대별 조정·보완요소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바란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한·미간 긴밀하게 협의와 함께 강한 훈련을 통해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작전수행능력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0월 제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작전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내년에 예정돼 있는 최초작전운영능력(IOC) 평가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군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전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 계대별로 간부들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1950년 미국에 전작권을 넘길 때는 우리 능력이 미약했지만 전작권을 넘겨 받아야 할 시점에서 보면 우리 보다 월등히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

정 장관은 또 “국방개혁 2.0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예산 확보와 법령 정비와 함께 실행력과 추진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국방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 군이 한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병영문화 혁신은 여기 있는 장군들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할 때만이 가능하다. 환골탈태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지휘관들은 이 같은 5대 국방운영 중점을 적극 추진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뒷받침하는 ‘강한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전사작전권 전환 추진 상황과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의 경과 및 이행 현황 등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도 진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2018년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뒷받침하는 ‘강한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매진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며 “이 같은 담대한 여정에서 보면 우리 보다 월등히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완주군 공고 제2018-1486호

완주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열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일원에 완주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04일

완주군 **완주군수인**

-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완주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위치 :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504-1번지 일원
다. 계획규모 : A=70,784km
라. 계획시행자 : 완주군
- 관계서류** : 요약문 참조[자세한 보고서 등은 면사무소 공람]
-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8년 12월 04일 ~ 2019년 01월 03일(20일간, 공휴일제외)
● 열람장소 : 완주군 도시개발과, 산림축산과, 화산면사무소
-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18년 12월 11일(화요일) 11:00
● 장 소 : 화산면사무소
- 주민의견 제출방법**
●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열람기간 내 또는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산림축산과(☎063-290-3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